

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

범사에 감사하라

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
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" (살전 5:18)

필리핀 선교사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

그는 미국에서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을
획득하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.
그런데 그만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.

이제 모든 사역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때에
그는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누워있는
상태로 들것에 들려 다녀야만 했습니다.

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.

얼마 후 그가 기독교 서점을 경영하게 되었는데
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.

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아름답게 해주셔서
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

감사는 언제나 가장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.

- 하용조